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3년 10월 25일 19:00시 네그랄 병원(베로나)에서
우리 자매 **루치아, M. 페르디난다 펠레그리니** 수녀님께서
85세의 일기로 61년간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선종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미사의 복음 환호송의 이 구절은 “깨어 있는”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루치아 수녀님께서서는 빠스또렐라로서 이 자세를 깊이셨으며, 깨어 있는 표양으로써 기꺼운 마음으로 선한 목자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음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은 1938년 2월 5일 트렌토 쵸바의 베르라에서 태어나셨고 1938년 2월 7일에 베르라의 성모 승천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60년 9월 5일에 알바노 모원에 입회하셨고, 1961년 9월 2일에 수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62년 9월 3일에 M. 페르디난다라는 수도명으로 첫서원을 하셨습니다. 1967년 9월 3일에 알바노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1961년 6월 29일에 하신 착복식을 위한 청원서에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적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잘 것 없는 딸인 저를 선택하신 것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빠스또렐라가 되기 위해 저의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합니다.”

첫서원 후에 바로 이탈리아의 여러 공동체에 파견되어, 여러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962년에 유치원 교사실습을 위해서 트렌토 친데 테시노 공동체에 파견되어 약 일년 동안 머무셨습니다. 1963년에 아스티의 페레레 공동체로 이동하셔서 주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셨고, 1964년에 살레르노의 리칠리아노 공동체의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1975년 트란스아쿠아 공동체로 파견되어 1986년까지 머무시면서 공동체 원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1987년에는 트렌토에 약 10년 동안 머무시면서 주로 유치원 사목을 하시고 공동체 원장도 지내셨습니다. 1997년에 리보르노의 카포리베리에 파견되셔서 가정 사목에 주력하셨고 1998년에는 베로나 네그랄 공동체에서 안식년을 보내셨습니다.

충전의 시간 후에 다음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하셨습니다. 1999년 리보르노의 카포리베리에서 가정 사목, 2007년 파도바의 치베에서 역시 가정 사목, 2016년 베로나의 네그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2018년 몰리아노의 메돌라에서 노인과 환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시고, 2019년에는 네그랄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셔서 2023년 병으로 건강이 약해져서 돌봄을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수녀님은 평온하게 병을 받아들이시고 매 순간 자매들과 의료진에게 감사하셨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을 큰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시고 평온하게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신 네그랄 공동체 수녀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몇몇 수녀님들은 루치아 수녀님의 평온한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루치아 수녀는 우리 네그랄 공동체에서 선한 목자의 선함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과 고통 중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야 했을 때에, 평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의료진과 간호진은 루치아 수녀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다고 증언하며, 루치아 수녀님은 결코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수녀님을 방문해서 어떠시냐고 질문하면 수녀님은 “오늘 저는 “siora(대접을 받는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은 초기 양성기부터 깊이 기도하는 자매로,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단순하고, 일을 열심히 하며, 공동체 생활을 사랑하고, 사목 특히, 어린이, 청소년, 가정 사목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루치아 수녀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수녀님은 많은 시를 쓰시고 수도회의 중요한 축일 때면 그것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수녀님이 작시한 많은 시의 운율처럼 믿음의 운율을 전하곤 했습니다. 또한 병환의 시기에 수녀님의 평온하고 신심 깊은 성격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의료진들과 간호한 사람들도 수녀님을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루치아 수녀님, 저희는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기쁘고 성실하게 빠스또렐라로서 살아온 수녀님의 삶이 저희와 교회에 있어서는 선물이기에 선한 목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수녀님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시련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향한 연대 그리고 평화의 선물을 위해 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년 10 월 25 일 로마
성 크리스산토와 다리아, 순교자들 기념일에

총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